Digital & IT

강필상 기자의 아이폰 24시

인터넷 무료·길찾기 척척 '아이폰 괜찮네'

잠 깰듯 뒤척이자 '어플' 자동 알람
쇼핑몰 주문 물건 배송내역 점검도

9일 새벽 6시30분. 기자는 아이폰(iPhone·3GS 16GB)에 설치한 'sleep cycle alarm clock' 어플리케이션(응용 프로그램·이하 어플)이 울리자 침대에서 일어났다. 알람은 6시40분으로 맞춰놨지만 잠에서 곧 깰듯하며 침대에서 뒤척거리는 동작을 감지한 어플이 자동으로 작동한 것이다.

잠에서 깨자마자 아이폰을 켜 인터넷에 접속, 밤새 쏟아져 나온 뉴스를 검색했다. 중앙 일간지는 물론 인터넷 뉴스와 포털사이트 등의 접속이 가능하다. 이 모든 인터넷 사용은 무료다. 무선랜(WI-FI)에 접속할 경우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전 8시 전날 인터넷쇼핑몰에서 주문한 물건에 대해 배송내역을 점검하는 어플(TaekBae)을 사용하며 사무실에 출근했다. 오후 2시, 광주시 광산구 신촌동 인근 주택가를 찾기 위해 아이폰의 '지도' 어플을 켰다. 현재 내 위치에서부터 도착 위치까지 정확하게 길 안내를 해주는 내비게이션 어플이라 손쉽게 약속장소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

애플사의 아이폰이 휴대전화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사용자 중심의 편리성과 틀을 깬 대담성, 디자인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 아이폰은 지난달 27일 서울에서 런칭쇼를 개최한 이후 불과 10여일만에 전국적으로 8만여대(광주·전남지역 3천500대)의 기록적인 판매량을 기록하며 스마트폰 열풍을 주도하고 있다.

◇뛰어난 터치감= 아이폰을 작동시킨 후 바로 드는 생각은 뛰어난 터치감이었다. 기존의 터치폰과 확연히 다른 터치감은 그야말로 '차원이 다르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다. 타 터치폰은 감압식으로 손가락의 압력을 이용한 반면 정전기를 활용한 아이폰은 반응이 훨씬 빠르다.

UI(사용자환경)도 사용하기 편리한데다 취향에 맞는 어플을 유·무료로 쉽게 다운받아 쓸 수있다.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수만가지의 어플은 철저히 사용자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다. 게임은 물론 실생활에 필요한 기상천외한 어플까지 아이폰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준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에 맞게 제작된 국내 휴대전화가 아닌 탓에 세심한 면이 조금 부족하다. 배터리의 경우 내장형으로 돼 있어 교환할 수 없게 돼 있다. 기본적으로 국내산 휴대전화의 경우 두개의 배터리가 있어 다 쓸 경우 번갈아가며 교체할 수 있지만 아이폰은 한 개의 내장형 배터리로 계속 사용해야 한다. 전화번호 검색도 약점이다.

한글 초성검색이 지원이 안돼 검색하는데 상당히 번거롭다.

◇국내외 모바일 업계의 반격= 삼성의 옴니아2는 위에서 언급한 아이폰의 약점을 보완한 휴대전화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카메라의 기능도 훨씬 좋아 소비자 특유의 감성을 잘 살려냈다.

구글은 최근 휴대전화에서 말을 하면 원하는 외국어로 자동 통역해주는 기술인 '자동 통역기능'과 휴대전화 카메라로 물체를 찍으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구글 고글스' 서비스를 공개했다. 예를 들면 '광주시청' 건물을 휴대전화로 찍은 뒤 구글 고글스를 이용하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 kps@kwangju.co.kr

지난 10여일간 아이폰을 직접 사용해본 기자가 작동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이폰은 발매 10여일만에 8만여대의 실적을 올리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휠라코리아, KT와 함께 '자녀보호캠페인'

휠라코리아(대표 윤윤수)가 KT와 공동으로 자녀보호캠페인 'SHOW와 함께하는 FILA 세이프가드 캠페인'에 들어갔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아이들이 실제 위험 상황에 처했을때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기획된 것으로 이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3개월간 휠라 및 휠라 키즈 매장에서 진행된다. 휠라와 휠라 키즈는 어두운 곳에서 빛을 발하는 재귀반사 소재와 초경량 소재를 사용해 아동 안전과 신체발육을 고려한 책가방 세트를 각각 출시했다.

캠페인 기간 동안 구매 고객에게 자녀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애니콜 보디가드폰이나 SHOW 아이러브요금 상품을 무료로 제공한다. /장필수기자 bungy@

전상호 본부장 사장 승진

GS칼텍스 임원 정기 인사 단행

GS칼텍스(회장 허동수)는 9일 전상호(57·사진) 생산본부장을 사장으로 승진발령하는 등 임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전상호 사장은 연세대 화공학과를 나와 1977년 GS칼텍스에 입사, 싱가포르 현지법인 부사장, 원유·수급본부장 등을 거쳐 생산공장을 지휘하는 생산본부장을 맡아왔다.

이번 인사에서 이재영 인사부문장은 전무에서 부사장으로, 김완빈 수급부문장(상무)은 전략구매부문장(전무), 정찬수 경영기획부문장(상무)은 법인사업부문장(전무), 허세홍 싱가포르현지법인장(상무)은 전무로 각각 승진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안전한 식품 건강한 사회

소 출생에서 판매까지 정보 관리
소비자들 올바른 식품선택권 보장

❷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지난 8일 오후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유통관리과 '원산지단속 112기동대'와 동행한 원산지표시제 단속현장.

광주시 북구 운암동에 위치한 한 숯불갈비 전문점에 들어서자 메뉴판에 불고기 백반과 소고기 비빔밥, 떡갈비 등에 '국내산 한육우'라는 모호한 원산지표시가 눈에 띄었다. 또 손님들에게 서비스로 무료 제공하는 선지국 역시 원산지표시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

원산지 단속반원들은 식당 주방냉장고에 보관된 쇠고기를 제출받아 20g씩 3개의 비닐봉지에 샘플을 채취하고 메뉴판 등 채증사진을 꼼꼼하게 찍었다. 쇠고기 샘플은 전남지원 농산물안전성분석실에서 1차로 모색(毛色) 유전자분석(MCIR) 분석을 통해 한우와 비한우를 구분한 후 2차 단일염기다형성(SNP) 분석, 3차 MS(초위성체 분석) 기법을 거쳐 최종 판별을 하게 된다. MS 기법은 축산과학원이 자체 개발한 변별력이 높은 45개의 유전자 마커를 활용, 한우식별 신뢰도가 99.9% 이상이다.

조기홍 112기동대 반장은 "수입 쇠고기를 사용하면서도 소비자들이 한우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식육의 종류 거짓표시'에 해당된다"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지적했다.

전남지원은 올해 1월부터 이달 초까지 수입쇠고기, 육우와 젖소고기를 조리한 후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한우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23건(광주 10건, 전남 13건)을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한 24건은 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해 쇠고기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쇠고기 이력추적제'단속도 112기동대의 주요 업무중 하나이다. 12자리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 사육-도축-포장처리-판매단계 등 4단계에 걸쳐 이력관리를 하도록 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지난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10월 1일부터 일제단속을 펼친 결과 미표시 2개소(60만원)와 거짓표시 8개소(240만원) 등 모두 10개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표시제와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국민들의 식품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양 날개이다.

소비자에게 농식품 구매·소비시에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식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해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운영으로 한우 유통경로가 투명화되면서 2003년 36.3%까지 하락했던 국내산 쇠고기의 시장점유율은 쇠고기 이력 추적제 전면 시행 3개월 만인 지난 9월 50%까지 회복했다. 맛과 품질이 우수한 한우가 제값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함께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음식점 단속시 유통단계에서 식육의 종류를 속였을 경우 단속의 어려움이 많고, 현행 쇠고기 이력추적제에서 DNA동일성 검정을 통해 '일치·불일치' 여부만 판정해 어떤 개체인지 알 수 없는 시스템 등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